

대학생의 비평 글쓰기와 창의적 역사의식 함양 사례 연구

- 2018년 1학기 인천대학교의 <글쓰기 이론과 실제> 수업을 중심으로 -

최호영*

|| 차례 ||

- I. 서론: 대학 글쓰기 수업과 비평 글쓰기의 위상
- II.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와 비평 글쓰기의 가능성
- III. 집단 이데올로기 경계와 주체적 개인의 상 모색
- IV. 성 고정관념 비판과 유연한 젠더의식 확립
- V. 결론: 비평 글쓰기와 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

【 】

이 글의 목적은 대학 정규 교과 과정에서 시행한 비평 글쓰기의 사례를 통해 대학생들이 교양의 차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평 글쓰기는 2018년 1학기 인천대학교에서 시행한 <글쓰기 이론과 실제> 수업에서 실습한 것이다. 수강생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히야오(宮崎駿)의 작품 중 가장 자전적인 성격을 띠면서 드물게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붉은 돼지』(1992)를 시청하고 이에 대한 비평 글쓰기를 작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과 파시즘에 대한 감독의 반전의식을 읽어내는 것에서 나아가 집단 이데올로기 자체를 경계하고 주체적인 개인의 상(像)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당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우월주의의 시선을 비판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연한 젠더의식을 모색하고 올바른 성 평등의식을 확립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붉은 돼지』를 둘러싼 비평 글쓰기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개개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객원교수

인의 해석에 따라 재탄생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역사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평 글쓰기는 다양한 미디어와 연계하여 과거와 현재, 동시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비평 글쓰기, 『붉은 돼지』, 주체적 개인, 젠더의식, 역사의식, 인문학적 소양

I. 서론 : 대학 글쓰기 수업과 비평 글쓰기의 위상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은 필수 교과목으로서 학생들이 향후 대학의 정규 교과를 소화하는 데 발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장차 사회인으로 요구되는 표현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쓰기 수업에서는 대체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과정을 비롯하여 글쓰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 성찰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등 여러 유형의 글쓰기를 실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비평 글쓰기는 편의상 창의적 글쓰기로 분류되면서도 글쓰기의 실제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거론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테면,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글쓰기 수업의 교재에서는 글쓰기의 실체를 ‘감상과 비평’, ‘보고와 제안’, ‘주장과 설득’으로 분류하고서 ‘감상과 비평’을 ‘제1장’으로 다루고 있다.¹⁾ 홍익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글쓰기 수업의 교재 경우 ‘감상문과 비평문’은 글쓰기의 실제 중 ‘설명문’에 이어 앞쪽으로 편성되어 있으며,²⁾ 인천대학교에서 시행하는

1) 서울대학교 글쓰기의 기초 편찬위원회 편, 『글쓰기의 기초』, 서울대 출판부, 2015, p.189.

2) 홍익대학교 국어교재편찬위원회 편,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홍익대 출판부, 2016, p.117.

글쓰기 수업의 교재 경우 ‘비평문 쓰기’는 창의적 사고를 양성할 수 있는 글쓰기로서 우선적으로 제시되어 있다.³⁾ 이처럼 비평 글쓰기는 글쓰기 수업에서 대학생들에게 요청되는 선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마도 글쓰기의 실제에서 비평 글쓰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평’이라는 행위 자체에 내재해 있는 능동성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비평(批評)’이라는 말에 ‘비판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⁴⁾ ‘비평’ 행위에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주체적인 태도가 개입해 있다. ‘비평’의 대상으로는 흔히 그림, 조각, 음악, 영화, 연극 등 예술작품을 떠올릴 법하지만, 이외에도 동시대의 사회현상이나 문화현상 등으로 확대해볼 수 있다. 글쓴이는 바로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 입각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⁵⁾ 이런 점에서 비평 글쓰기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에서 나아가 대상을 둘러싼 능동적 행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고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비평 글쓰기가 글쓰기 수업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이유는 비평 행위 자체에 내재해 있는 창의성 때문이다. 보통 비평하는 사람과 비평하려는 대상을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둘 법하지만, 실제로 비평자와 비평 대상은 상호간의 대화를 필요로 하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 놓여 있다. 비평자는 대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눈으로 대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⁶⁾

3) 인천대학교 글쓰기교재 편찬위원회, 『대학인의 글쓰기』, 태학사, 2018, p.135.

4) 위의 책, 같은 면.

5) 홍익대학교 국어교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pp.117-118.

이런 점에서 비평 행위는 단순히 비판적인 사유를 전개하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비평 행위에 담긴 두 번째 측면이 보다 중요해지는 까닭은 글쓰기 수업을 대학 교양 본래의 목적과 접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대학교 산하에 있는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원 등을 비롯하여 대학교에서 단과대학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교양대학에서는 점차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예컨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경우 교양교육의 첫 번째 지향점으로 대학생들이 “인간, 사회, 자연, 역사에 대한 다각적 이해방식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탐구활동과 정신가꾸기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⁷⁾ 또 다른 예로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의 경우 “지성, 인성, 영성”을 균형감 있게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 아래 그 중에서도 “창의적 지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첫 번째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다.⁸⁾ 이처럼 국내 대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교양교육의 목적을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어진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창조해낼 수 있는 비평은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과 충분히 상통할 여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8년 1학기 인천대학교에서 시행한 <글쓰기 이론과 실제>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비평 글쓰기가 교양교육의 취지와

6) 서울대학교 글쓰기의 기초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p.192.

7) 검색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홈페이지, 검색주소: <http://hc.khu.ac.kr/v2/01/02.php>, 검색일자: 2018년 9월 22일 23시 35분.

8) 검색어: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홈페이지, 검색주소: <http://wholeperson.sogang.ac.kr/contents/wpe/cor/goal.html>, 검색일자: 2018년 9월 22일 23시 55분.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1992)를 시청하고 이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수강생들이 작성한 비평문을 검토하는 작업은 과거와 현재 간의 활발한 대화에서 파생하는 역사의식을 창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일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II.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와 비평 글쓰기의 가능성

주지하다시피,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1941~)는 애니메이션의 산실인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하여 일본 애니메이션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린 거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78년 감독으로서 첫 작품인 『미래소년 코난』을 연출한 이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도로』, 『마녀배달부 키키』,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꾸준하게 흥행작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대체로 고대 신화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적인 특색을 여실히 보여주면서도 거대 기계 문명이 지구를 뒤덮은 상황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일깨우는 특징을 보여준다.⁹⁾ 그 중 『붉은 돼지』는 소재의 측면에서나 작품 배경의 측면에서 그의 여타의 작품과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재의 측면에서 볼 때 『붉은 돼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자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¹⁰⁾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애초 일본 항공에서

9) 양은경, 『일본사를 움직인 100인』, 청아출판사, 2012, pp.584-590.

가내 상영용으로 기획했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비행’ 혹은 ‘비행기’를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다. 이는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유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행기’에 대한 애정에서 연유하였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운영하던 미야자키 항공사라는 군수공장에서 일한 덕택에 그는 매일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볼 수 있었고 집에서도 비행선의 모형을 실컷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¹⁾ 이런 점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의 작품에서 ‘비행’이라는 소재를 애용하는 것을 넘어 이 작품에서 유독 ‘비행’이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도와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작품의 제목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제작한 이 작품은 실제로도 그가 중년이 된 자신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미야자키 하야오는 『붉은 돼지』에서 주인공 캐릭터인 ‘돼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제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선 이 작품이 ‘피곤해서 뇌세포가 두부가 된 중년 남자들을 위한 만화 영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밝고 쾌활하지만 야단법석은 떨지 않고, 역동적이지만 파괴적이지는 않다.
(……)

**남자들은 모두 밝고 쾌활하며, 여자들은 매력 넘치고 인생을 즐긴다.
그리고 세계 역시 한없이 밝고 아름답다. 그런 영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 『『붉은 돼지』 메모 연출자서』 부분¹²⁾

10) 무라세 마나부, 정현숙 옮김, 『미야자키 하야오의 숨은 그림 찾기』, 한울, 2006, pp.129-146.

11) 위의 책, p.584.

12) 미야자키 하야오, 황의웅 옮김, 『미야자키 하야오-출발점(1979-1996)』, 대원씨아이, 2013, p.381. 굵게 강조한 표시는 인용자의 것이며, 이하 생략함.

위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붉은 돼지』를 “피곤해서 뇌세포가 두부가 된 중년 남성들을 위한 만화영화”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국제편에 지친 비즈니스맨들이 “산소결핍으로 한층 둔해진 머리로도 즐길 수 있”도록 『붉은 돼지』에서 사망으로 환하게 열린 세계를 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사 밝고 쾌활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특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돼지’가 통상적으로 체형의 측면에서나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측면에서 중년 남성을 적잖이 환기하면서도 하늘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 지친 중년 남성들에게 적잖은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재와 특정 캐릭터를 작품의 배경과 연결해보면 『붉은 돼지』가 순전히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동기에 머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의 배경이 대부분 허구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비해, 『붉은 돼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명확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³⁾ 이런 가운데 『붉은 돼지』에서 주인공 ‘포르코 로소(Porco Rosso, 이탈리아어로 붉은 돼지라는 뜻)’가 애초 ‘돼지’였던 것이 아니라 과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죄의식으로 인해 스스로 마법을 걸어 ‘돼지’가 되었다는 것은 감독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밝힌 동기와 괴리되는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붉은 돼지』를 제작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돼지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붉은 돼지’의 주인공을 만들었다.”라고¹⁴⁾ 고백한 바

13) 김화영, 「미야자키 하야오의 『붉은돼지(紅の豚)』론」, 『일본근대학연구』 제5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6, pp.171-187.

14) 이희승, 「관동대지진 애니메이션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인터뷰 365』, 2013.07.29; 검색주소: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39>, 검색

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는다면, 『붉은 돼지』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겹쳐지는 가운데 전쟁, 국가, 민족 등에 대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떠한 태도를 내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우리는 『붉은 돼지』를 통해 만화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함께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감독의 역사의식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붉은 돼지』가 비평 글쓰기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때 비평 글쓰기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말하자면, 흔히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내리는 관점에는 우리가 자신이 속해있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과거에 대한 현재의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¹⁶⁾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붉은 돼지』에 담긴 역사의식을 고찰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역사를 애니메이션이라는 허구적 장치를 통해 연출한 감독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는 것과 통한다. 이는 사실 전후의 일본사회를 살아온 미야자키 하야오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으며, 실제로도 그간 『붉은 돼지』에 관한 논의는 천황제 파시즘에 대한 감독의 경계의식을 읽어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¹⁷⁾

여기서 나아가 『붉은 돼지』에 나타난 과거의 역사와 이에 대한 감독의

색일자: 2018년 9월 25일 16시 50분.

15)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에 따르면, 『붉은 돼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쟁에 대한 회의 의식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김종태, 「지부리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전쟁의 서사와 의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pp.236-239 참고).

16) 에드워드 카(E. Carr),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6, pp.35-46.

17) 대표적인 논의로는 박기수, 「<붉은 돼지>, 거부와 유희의 이율배반」, 『국제어문』 제53집, 국제어문학회, 2011, pp.259-287; 김형석·김성훈, 「『붉은 돼지』에 나타난 캐릭터와 텍스트의 의미구조 분석-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4, pp.243-255 참고.

해석은 2018년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과 맥락에 맞게 또 다른 역사의 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소속의 학생들이 진행한¹⁸⁾ 비평 글쓰기를 살펴보면 그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18) 『붉은 돼지』에 관한 비평 글쓰기는 2018년 1학기 인천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글쓰기 이론과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수강생 총38명 중 2명을 제외한 36명이 일어일문학과 소속의 학생이며, 38명 중 33명이 최종적으로 글쓰기에 참여하였다. 이 수업의 목적이 학생들의 기초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평 글쓰기에 대한 강의는 3주에 걸쳐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주(5월 1일)에는 감상과 비평의 차이를 학습하고 비평문의 요건, 비평문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론 학습을 진행하였다. 둘째 주(5월 8일)에는 『붉은 돼지』를 시청하고 조별로 영화의 주제와 메시지, 문제성 등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였다. 셋째 주(5월 15일)에는 『붉은 돼지』에 관한 영화 비평문을 개별적으로 작성하였다. 비평문은 1400자 내외의 분량으로 담당교수가 당일 배부한 원고지에 작성되었으며, 『붉은 돼지』에 관한 참고자료를 원고지의 여백을 활용하여 외각주와 참고문헌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p>〈수강생 글쓰기 앞면 샘플〉</p>	<p>〈수강생 글쓰기 뒷면 샘플〉</p>

(가) 이 영화는 일부 특정 층에서만 호응을 얻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단순히 로망과 낭만의 요소보다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여다본다면 이 영화는 많은 이들에게 현대 사회에 떠오르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평가하며 마치도록 한다. (김○○)¹⁹⁾

(나) 단지 사회가 만든 틀 속에서 성에 따른 성격과 역할에 맞게 행동하던 악습은 개인의 의식과 함께 고쳐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눈엔 애니메이션에 불과할지라도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고, 한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문○○)

(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 현대인들은 여성을 단순히 선택적, 보조적, 미적 존재라는 틀에만 가두어 놓지 말고, 남성과 동등하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존재로 대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 양성평등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 지금, 개봉한 지 26년이나 지난 『붉은 돼지』는 조금이나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생각거리를 주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들은 『붉은 돼지』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자신이 처한 한국사회의 상황에 맞게 사유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의 경우 『붉은 돼지』에서 단순히 ‘비행’이라는 소재에 대한 중년 남성의 “로망과 낭만의 요소”를 읽어내기보다 과거 ‘파시즘’에 대한 감독의 비판의식을 읽어내고 있다. 나아가 불분명하게나마 『붉은 돼지』가 “많은 이들에게 현대 사회에 떠오르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봄으로써 현대 사회의 문제와 관련

19) 학생들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개인 사생활을 고려하여 성만 밝히도록 하며,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되도록 수정하여 인용하도록 한다.

하여 영화의 시의성을 정초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나)의 경우 『붉은 돼지』에서 당대 사회에 횡행하던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다. (다)의 경우 『붉은 돼지』에서 남성중심적인 시선에 의해 여성을 차별화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성평등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 영화가 중요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붉은 돼지』에서 감독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 자신의 입장에 맞게 과거의 역사를 맥락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작성한 비평 글쓰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역사의식의 다양한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집단 이데올로기 경계와 주체적 개인의 상 모색

앞에서 우리는 『붉은 돼지』를 둘러싼 비평 글쓰기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역사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전후 일본 사회를 살아간 감독의 시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후를 바라보는 가운데 『붉은 돼지』에서 전쟁, 국가, 민족 등에 대한 감독의 태도를 읽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 학생들의 시점에서 『붉은 돼지』가 오늘날 한국사회에 환기하는 문제적인 지점을 읽어내는 것이다. 학생들이 통상 텍스트 분석과 그에 대한 가치평가에 충실할 경우 전자의 측면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영화의 시의성에 천착할 경우 후자의 측면이 부각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비평 글쓰기를 검토해보면,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역사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주제가 ‘제1차 세계대전’과 결부되어 있는

파시즘 체제라면, 다른 하나의 주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젠더문제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비평 글쓰기에 형상화된 역사의식을 살펴보자.

(가) 첫 번째 메시지는 반전, 반국가적인 메시지이다. 주인공의 대사 중 이런 대사가 있다. “파시스트가 되느니 돼지가 나아.” 당시 이탈리아의 경우 파시스트인 무솔리니의 정권 아래에 있었고 이탈리아 군대 역시 파시즘에 자유롭지 않은 위치였다. 주인공은 이러한 전체주의의 조직에 대한 반감과 제1차 세계대전 중 동료를 잃으면서 얻은 트라우마로 인간을 불신하였는데 이는 작중 포르코가 피오에게 한 대사인 “너는 좋은 애야. 너를 보면 인간도 그리 나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군.”에서 알 수 있다. 이 주인공의 심정은 이탈리아 군대와 주인공을 비교하면 더 확실해진다.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조직적인 성향을 띠는 군대와 홀로 생활하며 인간에 비우호적인 주인공은 상극에 있다. 이런 주인공에게 자신의 사상을 투영하고 또한 과거의 일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감독의 의도가 보인다. (임○○)

(나) 아마도 포르코가 돼지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 때문일 것이다. 옛 전우를 만나는 장면에서 국가에서 포르코에게 ‘게으르고 나태한 돼지’라는 죄목을 씌웠다고 말한다. 파시스트들은 실제로 정권에 반대하는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을 가리켜 ‘게으르고 나태한 돼지’라고 비난했다. (……) 이런 점을 보았을 때 마르코 대위가 돼지 포르코가 된 것은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파시즘에 세뇌되어 버린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 묻지 않은 피오의 눈에는 인간 마르코가 보였던 것이다.

“파시스트가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낫지”라든가 “돼지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대사를 통해 마르코 대위는 스스로 돼지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대사를 통해서 파시즘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대중들에게도 날 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위에서 학생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대사와 인물에 초점을 맞춰 서사 구조를 분석하여 감독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한다. (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이탈리아에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대사에 초점을 맞춰 당대 파시즘 체제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를 읽어내고 있다. 영화의 서두에서 “비행정 시대에 지중해를 무대로 하여 명예와 여인과 돈을 걸고 하늘의 해적과 싸워 빨간 돼지라고 일컬어진 한 마리의 돼지의 이야기”라는 자막으로 제시되어 있듯이, 『붉은 돼지』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라는 격동적인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포르코 로소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 대위로 참전하였다가 불시의 습격으로 전우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생명을 말살하는 전쟁 행위에 대해 큰 회의를 느낀다. 그는 이후 공군에서 나와 이탈리아 정부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 자유로운 비행기 조종사로서 ‘공적(하늘해적)을 소탕하여 번 현상금으로 살아간다.

(가)에서는 이런 상황에 주목하는 가운데 “파시스트가 되느니 돼지가 되는 게 낫다”는 포르코의 대사가 파시즘 체제에 대해 가지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읽어내고 있다. 이 대사는 포르코가 옛 전우인 페라린과 영화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페라린이 포르코에게 다시 공군으로 돌아오라는 권유에 대한 답변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대사를 통해 글쓴이가 전쟁과 이를 합리화시키는 이념에 대한 포르코의 거부심리를 읽어낼 법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글쓴이는 포르코가 공적 측에서 영입한 커티스와 대결하기 전날 밤, 피오와 나누는 대화중에서 “너는 좋은 애야. 너를 보면 인간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군”이라는 대사에 주목하고 있다. 말하자면, 앞서 포르코가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 사상”과 “조직적인 성향을 띠는 군대”에 대해 비우호적인 감정을 내비친 것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을 일삼는 인간 자체에 대한 포르코의 깊은 불신감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포르

코가 암시장의 무기 거래상에게 “애국 따윈 인간이나 많이 하소”라거나 “돼지에겐 국가도, 법도 없소”라고 하는 등 영화 곳곳에서 파시즘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명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에서는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인공의 대사를 근거로 하여 주인공에게 감독 “자신의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전후 일본사회를 살아온 감독의 시점에서 ‘천황제 파시즘’으로 대변되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읽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나)에서는 주로 주인공 포르코 로소가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이탈리아에서 ‘돼지’라는 특정 캐릭터로 형상화되어있는 의도를 살펴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포르코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함께 출동하였던 전우를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으로 인해 ‘돼지’가 되었다. 전우의 미망인인 지나의 레스토랑에 그가 인간이었던 시절을 담은 유일한 사진이 걸려있으며 그가 그것을 보고 “이 가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에서는 포르코가 스스로 마법을 걸어 돼지가 된 것에 주목하여 포르코의 ‘돼지 되기’를 전쟁 행위를 일삼고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인간과 자신을 변별시키려는 시도로²⁰⁾ 보고 있다. 앞서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포르코가 영화 곳곳에서 파시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정 캐릭터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주인공의 사상과 결부하여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나)에서는 그것과 함께 포르코가 사람들의 시선에 돼지로 비치는 것에 주목하면서 감독의 의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말하

20) 비슷한 맥락에서 선행연구에서도 “포르코의 변신에는 동물이 될지언정 인간에 속하지 않으려는 반인간적인 정서가 투영되었다.”고 보고 있다(김종태, 앞의 논문, p.237).

자면, 글쓴이는 포르코가 옛 전우 페라린으로부터 정부가 그에게 “게으르고 나태한 돼지”라는 죄목을 씌웠다고 듣는 장면을 통해 그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적잖이 돼지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실제로 당시 파시스트들이 정권에 반하는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을 “게으르고 나태한 돼지”로 비난했다고 하는 점과 영화에서 다른 인간들보다 순수한 ‘피오’의 눈에는 포르코가 인간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는 포르코가 돼지가 된 것에서 당시 파시즘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던 ‘대중’들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에서는 돼지라는 캐릭터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감독의 입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들의 글에서는 주로 영화에 나타난 객관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가운데 전쟁과 파시즘에 대한 감독의 역사의식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다소 텍스트의 맥락을 충실하게 살펴보면서 감독의 의도를 추적해가는 방식이라면, 아래의 글에서는 영화의 메시지를 오늘날의 한국사회나 현대문명에 비추보려는 방식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 영화는 제목처럼 이탈리아어로 붉은 돼지라는 뜻을 가진 주인공이 돼지로 등장하는데, 붉은 돼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붉은 비행기를 조종했던 붉은 남작을 모티프로 삼고 있으며 영화의 배경을 통해 세계대전의 요소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많은 요소에서 미야자키 감독의 반전쟁주의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영화는 전쟁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우리가 국가나 삶의 무언가에서 강요에 대해 순응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김○○)

(라) 이 작품에서 인간은 파시즘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지배당하여 수

동적인 삶을 살아가며 현실에 짓눌려 하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포기한다. 그에 비해 돼지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여행을 다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비행을 계속하며 나라의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그 말은 즉 자기가 스스로 주관을 가지며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에 뛰어드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돼지가 자신을 정말 사랑하며 자신이 버린 나라의 제국주의에 맞서는 부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

파시즘은 국가가 개인의 진정한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곧 그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구성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돼지는 미개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도 결속되어 있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신○○)

위의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앞서 살펴본 글과 같이 ‘돼지’라는 특정 캐릭터가 함의하는 의미를 전쟁과 파시즘 체제에 대한 감독의 입장에서 읽어내고 있다. (다)의 경우 영화의 제목이자 주인공을 의미하는 ‘붉은 돼지’가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붉은 비행기를 조종했던 붉은 남작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감독의 역사의식을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글쓴이는 포르코가 페라린과 시칭하는 영화에서 돼지 캐릭터를 악인으로 설정하고 국가가 포르코를 애국주의에 반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으로 표상되는 국가주의에 대한 감독의 비판의식을 읽어낸다. 그리고 영화에서 포르코가 그러한 파시즘에 순응하는 군중들과 달리 저항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의 반전주의 사상을 읽어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다)에서는 텍스트의 구조를 충실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으면서도, 불충분하게나마 거기서 나아가 영화의 시의성을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에 비추고 있

다. 왜냐하면, 오늘날 권력구조가 과시즘과 같이 거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특정한 조직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단의 논리에 내몰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주체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집단 이데올로기 자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라)에서 또한 (다)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는 주인공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를 ‘인간’과 대비하여 살펴보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영화에서 인간들은 과시즘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짓눌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주인공 돼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비행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라)에서는 포르코가 독자적인 주관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읽어낼 법하다. 이와 함께 글쓴이는 인간과 돼지의 대립 구도를 문명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영화의 시의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유하고자 시도한다.

글쓴이가 보기에 물질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구조적인 체계를 갖춘 문명의 관점에서 돼지는 철저하게 야만의 영역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러한 돼지에서 벗어나려고 세련된 문명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주의, 제국주의 등 집단 이데올로기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에 비해 돼지는 인간에 비해 미개할지는 모르지만 외부 환경에 종속되기보다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글쓴이는 현대사회에서 틀에 박힌 일상생활을 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삶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식을 강조하고 있다.²¹⁾ 이런 점에서 학생들은 비평 글쓰기를 통

21) 이는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붉은 돼지』를

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려는 역사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성 고정관념 비판과 유연한 젠더의식 확립

앞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제1차 세계대전과 결부되어 있는 파시즘 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역사의식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먼저, 학생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대사와 인물에 초점을 맞춰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가운데 전쟁과 파시즘에 대한 감독의 역사의식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영화의 시의성을 오늘날 한국사회와 현대문명의 상황에 비추보는 가운데 집단 이데올로기나 평면적인 일상생활을 경계하고 개인의 주체적인 상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역사의식을 표출하고 있었다. 전자가 텍스트의 맥락과 감독의 의도를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수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 따라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능동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글들에서는 텍스트 분석에 근거하여 작품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보다는 전자의 측면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영화에서 애초 감독이 지향하려했던 의도와는 다른 지점을 읽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부와 유희의 이율배반”이라는 관점에 따라 접근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인공 포르코 로소는 비행을 통해 파시즘의 세계로부터 탈주하려하면서도 세계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박기수, 앞의 논문, pp.264-265).

후자의 측면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젠더문제를 다루고 있는 학생들의 글을 검토해보면,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보다 창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야자키 나도 포르코처럼 그냥 아이들을 보면서 담배라도 피우며 “철야는 독이다” “미용에 좋지 않아”라고 한다면 좋겠지만요(웃음). **영화에선 남자는 전부 바보짓을 하며 날아다니고 여자들은 전부 현명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착실한 사람들이죠. 뭐, 만담에나 있을 듯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좀처럼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죠. 스탠포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항상 밤에도 일을 하고, 일요일에 전혀 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시다.

- 『붉은 돼지』 공개 직전 인터뷰』 부분²²⁾

위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붉은 돼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입장을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 따라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실제 현실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상관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과도한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붉은 돼지』에서는 남자들이 전부 “바보짓”을 하며 살아가는 데 비해 여자들은 “현명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착실한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 그가 『붉은 돼지』를 제작하기에 앞서 “주요 등장인물이 모두 인생을 새겨온 리얼리티를 가질 것”을 지향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때,²³⁾ 남자들을 대체로 열등하고 부정적인 인물들로, 여자들을 탁월하고 긍정적인 인물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공감하는 서술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컨대, 한 학생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여성들이 인력보충을 위해

22) 미야자키 하야오, 황의웅 옮김, 앞의 책, pp.495-496.

23) 『붉은 돼지』 메모 연출각서, 위의 책, p.381.

적극적으로 일터에 뛰어 들고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켰다는 실례와 함께 『붉은 돼지』에서 나이를 불문하는 여성들이 포르코의 비행기를 수리 하거나 어린 소녀 피오가 비행기 설계사로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김○○).²⁴⁾

하지만 감독의 의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글에서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보다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 중 하나의 지점으로 영화에 나타 나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가) 1900년대 초 여성에게는 수동적인 태도가 강요되는 등 인격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다. 이런 여성의 모습은 등장인물 중 지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나는 호텔의 마담으로 큰 부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나서는 일 없이 항상 포르코를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이미지는 낮 동안 포르코가 자신을 찾아오길 기다리는 그녀의 내기에서 더욱 부각된다. 지나 이외에도 남성들이 전부 권력 다툼에 나가고 남겨진 비행기 공장의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처우가 드러나고 있다. (문○○)

(나) 영화를 보면 여성에 대한 낮은 젠더의식이 돋보인다. 영화 속 여성 등장인물인 피오가 전투기 수리와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주인공의 불신이 드러난다. 비록 피오의 노력으로 신뢰를 얻긴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믿음이 안 간다는 성 차별적인 인식이 영화 곳곳에 드러나 있다. 또 커티스와

24) 선행연구에서도 영화에 형상화된 여성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헬렌 매카시의 경우 “영화 속 일부 남성들이 사회의 주변부에서 좌충우돌의 모험만을 일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피오와 지나 두 여성이 자립심 강하고 유능한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화영의 경우 영화에서 여성들이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영위하는 가운데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여성”으로 나타난다고 고평하고 있다(헬렌 매카시, 조성기 옮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인디북, 2004, p.195; 김화영, 앞의 논문, pp.181-184 참고).

의 대결에서 여성을 경품으로 표현하는 등 상품화되어있는 일본의 낮은 여성 인권도 볼 수 있었다. 1992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도 이 영화엔 술집에서 노래하는 역할과 공장에서 일하는 역할과 피오 말고는 남성이 주를 이뤄서 이끄는 부분을 보면 영화 속 낮은 여성 인권이 드러나는 젠더의식이 나타난다. (김○○)

위의 글에서 학생들은 영화에서 당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낮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표출하고 있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학생들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남성을 바깥, 여성을 안으로, 성격적인 측면에서 남성을 능동적, 여성을 수동적으로 이분화시킴으로써 전자에 비해 후자를 열등한 위치에 두는 방식을 문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글쓴이는 영화에서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20세기 초에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먼저, 글쓴이는 여성 등장인물인 지나를 수동성의 영역에 위치시키고 있는 시각을 들고 있다. 영화에서 지나의 호텔 아드리아노를 운영하는 마담으로서 세 명의 남편을 전쟁으로 잃은 미망인으로 등장한다. 영화 초반부에서 지나의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공적들을 어머니와 같이 대한다거나 후반부에서 포르코와 커티스의 대결을 진압하기 위해 공군이 출동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글쓴이는 포르코로 대변되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지나가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나의 포르코에 대해 연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직접 마음을 표현하기는커녕 그가 낮에 자신의 정원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글쓴이는 당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극적인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는 구조를 문제시하고 있다. 이는 영화 중반부에서 포르코의 비행기를 밀라노의 피콜로사에서 수리하는 장면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감독의 언급에 따르면, 이 장면은

마을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심을 발휘하여 포르코의 비행기를 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그 이면에 남성들은 모두 밖이라는 넓은 세계로 큰 일을 하러 나가고 여성들은 안이라는 좁은 세계에 자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에서는 영화에 형상화되어 있는 당대 사회의 상황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읽어내는 가운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나)에서 영화가 제작된 “1992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좀 더 현재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와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주로 술집이나 공장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비해, 남성의 역할은 당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과 같이 개방적인 공간과 결부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글쓴이는 여성 등장인물인 피오에 대한 포르코의 “성 차별적인 인식”을 문제시하고 있다. 영화에서 피오는 피콜로사 주인의 손녀로서 포르코의 비행기를 설계하는 기술자로 등장한다.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건대, 처음에 피오가 포르코에게 비행기 설계를 담당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가 나이가 어릴 뿐더러 무엇보다 ‘여자라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장면은 당대 사회에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쓴이는 현재의 관점에 입각하여 영화에서 여성의 인권이 열악하게 드러나는 젠더의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감독의 의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맥락에서 과거의 상황을 바라봄에 따라 역사의식이 끊임없이 현재의 관점에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다음과 같이 남성중심주의의 시선에 대한 비판과 맞물리게 될 때 보다 여실하게 나타난다.

(다) 또 다른 여성인 피오는 지나에 비해 상당히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여 포르코의 비행선 설계자이자 동료로 인정받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 다만, 포르코가 피오에게 밤을 새우지 말라며 들었던 이유 중, 외모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은 여성은 늘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또한, 피오가 포르코와 함께하려 하자, 피오의 영달이를 언급하며 기관총 하나를 떠라는 장면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회화화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 (이○○)

(라) 내가 이 영화를 보며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의 모순된 주체적인 여성상이다. (……) 하지만 시대의 한계인지, 보는 내내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았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예를 위한 상품으로 걸거나 어린 여성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주인공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 등이 바로 그런 장면들이다. (……) 부디 이 영화를 보고 ‘나도 어찌면 어린 여성을’과 같은 생각을 하는 중년 남성이 없길 바라며, 이 영화를 보고 그저 단순히 자유주의를 외치는 붉은 돼지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이○○)

위의 글에서 학생들은 영화에서 감독이 주체적인 인격을 가진 인물로 여성 등장인물을 그리려 하면서도 그것과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영화의 중반부에서부터 포르코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피오에 초점을 맞춰 중년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여성에 대한 불건전한 환상을 조장하는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 감독의 입장에서 보자면, 피오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설계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포르코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적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다)에서는 포르코를 비롯한 중년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피오를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지점에서 애초 감독의 의도와는 다른 균열을 읽어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글쓴이는 포르코가 피오에게 밤을 새는 것은 외모에 좋지 않다고 말하거나 엉덩이의 크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기관총을 때라고 말하는 장면 등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희화화”시키고 있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영화의 후반부에서 포르코와 커티스의 대결 상품으로 피오가 등장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연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라)에서도 피오에 초점을 맞춰 감독이 표방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에서 모순된 측면을 읽어내고 있다. 글쓴이는 특히 피오가 포르코에게 단순한 비행 파트너 이상의 애정을 느끼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열일곱 살이라는 피오의 나이와 마흔 중반 정도로 추정되는 포르코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관계를 혼한 연인 사이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린 여성에 대한 중년 남성의 환상이 투영된 것으로 볼 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른 학생들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학생의 경우 피오가 개구리왕자 이야기를 꺼내며 포르코에게 기습 뽀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잠결에 그가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보는 장면에서 낭만적인 분위기에 감춰진 ‘롤리타신드롬(Lolita Syndrome)’을 읽어내고 있다(정○○). 또 다른 학생의 경우 『붉은 돼지』가 현대일본에서 제작·유통된 영화라는 점을 들어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영상매체가 어린 나이의 여성에 대한 중년 남성들의 환상을 자극할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임○○).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권력구조가 투영된 젠더의식을 경계하고 성 평등의식을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와 결부시켜봄으로써 창의적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비평 글쓰기를 전개하고 있다.

V. 결론 : 비평 글쓰기와 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대학 정규 교과 과정에서 시행한 비평 글쓰기의 사례를 통해 대학생들이 교양의 차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평 글쓰기는 2018년 1학기 인천대학교에서 진행한 <글쓰기 이론과 실제> 수업에서 진행한 것으로, 수강생의 전공 분야를 교양 강좌와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고 대학 교양이 지향하는 목적으로서 인문학적 통찰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중 가장 자전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특이하게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붉은 돼지』(1992)를 시청하고 이에 대한 비평 글쓰기를 작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생들은 전후 일본사회를 살아온 감독의 시각에 따라 영화를 바라보는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과 파시즘에 대한 반전의식을 읽어내고 있다. 이는 영화에 나타나는 대사나 ‘돼지’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 등 영화의 객관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영화의 메시지를 오늘날의 한국사회나 현대사회의 상황에 비추봄으로써 집단 이데올로기를 경계하고 주체적인 개인의 상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붉은 돼지』에 등장하는 당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우월주의의 시선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영화에서 애초 감독이 지향하던 의도에서 벗어나는 측면을 읽어내려는 시도로서 과거 역사에 대

한 학생들의 자의식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은 특히 영화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열등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표출하고 있는 점, 중년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여성에 대한 불건전한 환상을 조장하는 측면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학생들은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젠더의식과 성 평등의식을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붉은 돼지』를 둘러싼 학생들의 비평 글쓰기는 객관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영화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감독의 역사의식을 재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감독의 편협한 시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상황에 걸맞은 방향으로 역사의식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의 해석으로 재탄생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방향으로 역사의식을 함양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의 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후 보완해야할 점도 눈에 띈다. 첫 번째로, 이는 비평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연유한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줄거리 위주의 서술로 인해 글에서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큰 주제의 선정으로 인해 글에서 초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평 글쓰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는 글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연유한다. 왜냐하면,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론-본론-결론의 유기적인 짜임새를 갖추어야함에도 많은 학생들의 글에서 구성상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글쓰기 이론과 실제> 수업의 목적이 학생들의 기초적인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수업에서 토론과 발표를 통해 대상 텍스트를 이해하고 글의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방식 이외에 개요문을 작성하는 등 구성과 목적에 걸맞은 글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비평 글쓰기가 대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키려는 교양 본래의 목적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화 이외에 다큐멘터리, 시사교양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 또는 동시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²⁵⁾ 학생들의 비평 글쓰기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25) 최근 장르영화, 극 텍스트 등 여러 미디어를 활용한 비평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표현능력을 고취하거나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들은 이 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김유미, 『극 텍스트를 통한 인문학적 성찰과 비평적 글쓰기-〈인 더 하우스〉와 〈맨 끝 줄 소년〉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1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p.175-202; 심재욱,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장르영화를 활용한 비평문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어문연구』 제45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pp.431-455.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미야자키 하야오, 『붉은 돼지』, 대원씨아이, 2004.

2. 논문 및 단행본

김유미, 「극 텍스트를 통한 인문학적 성찰과 비평적 글쓰기 - <인 더 하우스>와 <맨 끝 줄 소년>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1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p.175-202.

김화영, 「미야자키 하야오의 『붉은돼지(紅の豚)』론」, 『일본근대학연구』 제5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6, pp.171-187.

김형석·김성훈, 「『붉은 돼지』에 나타난 캐릭터와 텍스트의 의미구조 분석 -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4, pp.243-255.

김종태, 「지부리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전쟁의 서사와 의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pp.236-239.

무라세 마나부(村瀬學), 정현숙 옮김, 『미야자키 하야오의 숨은 그림 찾기』, 한울, 2006, pp.129-584.

미야자키 하야오, 황의웅 옮김, 『미야자키 하야오 - 출발점(1979-1996)』, 대원씨아이, 2013, pp.381-496.

박기수, 「<붉은 돼지>, 거부와 유희의 이율배반」, 『국제어문』 제53집, 국제어문학회, 2011, pp.259-287.

서울대학교 글쓰기의 기초 편찬위원회 편, 『글쓰기의 기초』, 서울대 출판부, 2015, pp.189-192.

심재욱,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장르영화를 활용한 비평문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어문연구』 제45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pp.431-455.

양은경, 『일본사를 움직인 100인』, 청아출판사, 2012, pp.584-590.

에드워드 카(E. Carr),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6, pp.35-46.

인천대학교 글쓰기교재 편찬위원회, 『대학인의 글쓰기』, 태학사, 2018, p.135.

헬렌 매카시(H. McCarthy), 조성기 옮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인디북, 2004, p.195.

홍익대학교 국어교재편찬위원회 편,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홍익대 출판부, 2016, pp.117-118.

3. 기타

검색어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홈페이지, 검색주소 : <http://hc.khu.ac.kr/v2/01/02.php>, 검색일자 : 2018년 9월 22일 23시 35분.

검색어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홈페이지, 검색주소 : <http://wholeperson.sogang.ac.kr/contents/wpe/cor/goal.html>, 검색일자 : 2018년 9월 22일 23시 55분.

이희승, 『관동대지진 애니메이션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인터뷰 365』, 2013.07.29; 검색주소 :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39>, 검색일자 : 2018년 9월 25일 16시 50분.

Abstract

Case Study on the Critical Writing
and the Creative Historical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Class in the First Semester of 2018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Choi, Ho–young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find ways for university students to foster humanistic attitudes at the level of culture through critical writing in the university’s regular curriculum. The critical writing was practiced in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Class in the first semester of 2018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students in the class watched *the red pig*(1992), the most autobiographical as well as rarely dealing with a historical event among Miyazaki Hayao’s works, and wrote a critical response to the movie. The students’ writings showed the following: First, the students have identified the director’s anti-war sentiment on World War I and Fascism, which was the background to the movie, and went further to seek for a self-contained image of the individual being wary about collective ideology. Next, students criticized the stereotype of contemporary gender roles from the movie and the gaze of male chauvinism, and went further to find a flexible approach to gender consciousness and to establish a sense of correct gender equality. In this regard, the critical writing of *the red pig* offers to develop creative historical awareness in that it is about the history being recreated according to individual interpretations in current situations rather than about the history existing as objective facts in the past. Therefore, critical writing can be used actively to foster humanistic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contemporary environments including past and present.

Key Word : Critical Writing, *the Red Pig*, Independent Individual, Gender
Consciousness, Historical Awareness, Humanistic Attitudes

최호영

소속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객원교수

전자우편 : sinrochoi@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